

## 요약

인도는 홍수·사이클론·폭염 등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함에도 재해보험에 대한 통합된 체계가 부족해 보험 보호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. 인도 정부는 신속한 자금 집행이 가능한 지수형 보험의 도입과 자본시장의 유동성을 활용할 수 있는 보험연계증권(ILS)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음. 지수형 보험과 보험연계증권(ILS)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인도의 재난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

- 인도는 홍수·사이클론·폭염 등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함에도 재해보험에 대한 통합된 체계가 부족해 보험 보호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,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재난위험관리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
  - 인도는 2025년 세계재해지수(World Risk Index)<sup>1)</sup> 2위를 기록할 만큼 기후 재난에 취약하며, 거대 재난 발생 시 보장 공백으로 인한 정부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
  - 2018년 자연재해 보험풀(Nat-Cat-Pool) 구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자원 분담과 운영 방식에 대해 정부와 보험산업 간의 이견으로 제도화가 지연되어 왔음<sup>2)</sup>
- 인도 정부는 기존의 실손 보상 방식 외에 신속한 자금 집행이 가능한 지수형(Parametric) 보험의 전국 단위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
  - 지수형 보험은 강우량·풍속·기온 등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사전에 합의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손해사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재난 발생 직후 복구 자금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음
  - 2024년 인도 나가랜드(Nagaland) 지역에서 지수형 보험이 시범적으로 운영되었으며, 이를 기반으로 전국 단위로 확장하고자 함<sup>3)</sup>
- 이와 더불어 지수형 보험으로 인수한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재보험 시장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유동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연계증권(Insurance-Linked Securities; ILS)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음
  - 보험연계증권(ILS)은 보험회사가 보유한 위험을 채권·파생상품·재보험 계약 등 금융상품 형태로 구조화해 자본시장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수단으로, 대표적으로 대재해채권(Cat Bond)과 장수채권(Longevity Bond) 등이 있음
    - 보험연계증권(ILS)은 자연재해나 사망률 등 경제지표와 무관한 위험에 연계된 상품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주식·채권과 같은 전통적인 자산 시장과 상관관계가 낮아 위험 분산 포트폴리오로 활용될 수 있음

1) Bündnis Entwicklung Hilft·IFHV(2025), "World Risk Report 2025"

2) Reinsurance News(2018. 8. 29.), "India's planned nat cat re/insurance pool falters over funding disagreements"

3) Context(2025. 5. 16.), "Q&A: How a small Indian state overcame parametric insurance hurdles"

- 인도 국제금융서비스센터 감독기구(IFSCA)<sup>4)</sup>는 2025년 7월 'Insurance Linked Securities(ILS)' 보고서를 통해 대재해채권(Cat Bond)과 특수목적보험회사(Special Purpose Insurer; SPI) 설립을 위한 체계 구축안을 마련함<sup>5)</sup>
  - SPI는 보험회사가 보유한 재난 리스크를 자본시장 투자자에게 이전하기 위해 설립되는 법인으로, 특정 보험계약(주로 대재해채권 발행)의 이행만을 목적으로 하며, 채권 발행 대금은 국채, MMF 등 재해 발생 시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이 높은 안전자산에 투자됨<sup>6)</sup>

○ 인도에 지수형 보험과 보험연계증권(ILS) 제도가 도입될 경우,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보험금 지급으로 재난구호 재원을 빠르게 마련할 수 있고, 자본시장을 활용한 인수 한도 확대와 특수목적보험회사(SPI)를 통한 안정적인 자원 조달이 가능해져 인도의 재난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

- 전통적 재보험은 주로 연 단위로 갱신되어 재난이 발생할 경우 보험료의 급격한 상승 및 갱신 거절에 대한 위험이 있으나, 보험연계증권(ILS)의 대재해채권(Cat Bond)은 3~5년의 다년도 보장을 통해 안정적인 보장을 확보할 수 있음
- 뿐만 아니라, 재보험사의 지급여력에만 의존하지 않고, 특수목적보험회사(SPI)에 담보 자산을 예치함으로써 자원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
- 지수형 보험으로 인수한 위험을 대재해채권(Cat Bond)을 통해 자본시장으로 분산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인수 한도를 늘리고 보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음
- 다만, 지수형 보험 도입 시 실제 손실액과 보험금 간의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교한 지표(Trigger) 설계가 필수적이며, 공정한 지표 설정을 위한 독립적인 기후 관측 시스템과 데이터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

〈표 1〉 전통적 재보험·지수형 보험·대재해채권 유형 비교

유형	전통적 재보험	지수형(Parametric) 보험	대재해채권(Cat Bond)
장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모든 위험에 대해 적용 가능함</li> <li>• 갱신을 통해 지속 가능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유동성 확보 속도가 매우 빠름</li> <li>• 보험금 지급 절차가 신속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다년도 보장(Multi-year cover)이 가능함</li> <li>• 자본이 완전담보화(Fully collateralised)되어 안전함</li> <li>• 자본시장을 통한 추가 담보력 확보가 가능함</li> </ul>
단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연 단위 계약 중심</li> <li>• 부실 위험이 존재함</li> <li>• 담보력(공급)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실제 손실과 보험금 지급 격차(Basis Risk)가 발생함</li> <li>• 지표(Trigger) 설정이 명확한 재해에만 국한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모델링이 가능한 자연재해 및 일부 재해에 한정됨</li> <li>• 재현주기 15~200년(기대손실률 0.5%~7%) 수준의 위험에 한정됨</li> </ul>

자료: 인도 국제금융서비스센터 감독기구(IFSCA)(2025. 7. 30.), "Insurance Linked Securities(ILS)"

4) 인도는 금융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구자라트 주에 스마트 시티인 GIFT-City를 설립했으며, 특별경제구역법에 따라 GIFT-City 내에 국제금융서비스센터(IFSC)를 설립했음. 인도 국제금융서비스센터 감독기구(IFSCA)는 국제금융서비스센터(IFSC)내 금융 상품, 금융서비스 및 금융 기관의 개발 및 규제를 총괄하는 통합 기관임. 인도 국제금융서비스센터(IFSC)는 소득세·증권거래세·상품거래세·인자세·이자소득세·양도소득세 면제, 최대대체세(9%) 적용 등 다양한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가 주어짐

5) 인도 국제금융서비스센터 감독기구(IFSCA)(2025. 7. 30.), "Insurance Linked Securities(ILS)"

6) 특수목적보험회사(SPI)와 대재해채권(Cat Bond) 발행 구조는 아래와 같음

